



LPG충전소 안전성평가비용 조정 건의

한국LP가스공업협회

최근 개정된 LPG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와 관련, 우리회는 기존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평가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며 이를 조정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기존 충전소의 저장능력 증설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1호(2002. 6. 20)와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기존 LPG충전소의 증개축이 허용된 것은 기존 LPG자동차 충전소들이 작은 저장능력으로 급격히 증가한 LPG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LPG탱크로리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해주는 등의 안전관리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즉, LPG자동차의 증가로 도심 충전소의 경우 판매량이 월 1천톤을 넘어서게됨에 따라 대부분 저장능력이 10톤인 충전소가 1천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3회씩 탱크로리를 운행해야 했으며, 아예 탱크로리 2대를 충전소 내에 주차해 놓고 공급해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0~20톤인 LPG충전소의 저장능력을 20~30톤으로 확대한다면 탱크로리를 물려놓은 상태에서 공급하거나 탱크로리를 충전소내에 주차

하는 등의 위해요인이 제거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LPG법시행규칙과 관련고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장탱크용량을 증대하면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안전성향상을 전제로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안전공사는 관련고시에 안전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 안전성평가비를 약 8백여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시설 투자(몇천만원 내지 몇억 원대)를 요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는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예 증개축을 포기하는 충전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안전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당초 법개정 취지에 LPG충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안전성평가비용을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양청드립니다.